

유아의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권화숙*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Self-Esteem of Young Children

Kwon, Hwa Sook

본 연구는 유아의 자기존중감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보호자 296명을 대상으로 유아의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즉, 개인 내적요인(유아의 문제행동과 자기조절능력)과 보호자 요인(보호자의 양육효능감과 보호자 양육스트레스)으로 구분하여 이들 변인이 유아의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유아 자신의 자기평가, 우울, 정서성 및 행동억제 요인이, 보호자 요인에서는 보호자의 자녀양육효능감 및 보호자의 자녀양육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요인 모두의 설명력은 50.5%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자녀의 자기평가와 정서성 및 행동억제력 및 보호자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자기존중감은 높으며, 유아의 우울과 보호자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의 자기존중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유아의 자기존중감을 높이기 위해 유아의 문제행동 감소, 보호자의 양육 스트레스 감소 및 보호자의 양육효능감 및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수 방법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주제어 : 자기존중감, 문제행동, 자기조절능력, 자녀양육효능감, 자녀양육스트레스

* 수성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E-mail : i-nuli@sc.ac.kr)

I. 서론

인간은 태어나서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아개념을 형성해나간다. 유아들은 가정 뿐 아니라 유아교육기관에서도 또래나 교사와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자아 평가를 통해 자기존중감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김보람, 2013). 자기존중감(self-esteem)은 자신에게 부여한 가치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입장에서 유아 자신이 자랑스럽고 유능하며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며 가족과 친구를 사랑하고, 또한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의식 상태로 정의되고 있다(김영숙, 1997). 즉,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모든 일에 즐거움을 느끼고 명랑하고 밝은 마음으로, 남을 존중하며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신념과 능력감, 가치감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긍정적이며 의욕적으로 생활해 가는 태도로(김보람, 2013),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고 예언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사회인지 이론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개념 중의 하나이다.

자기존중감이 높은 유아는 자기에 대한 지각이 긍정적이며 또래와 협동하며 규칙을 지키는 등의 사회적 기술과 사회적 능력이 높고, 사회적 상황과 요구에 적합한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정서 조절능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정원, 2000; 윤석빈, 1999; Brown, 1998). 또한 자기존중감이 높을수록 기본적인 학습활동에 대한 자신의 수행 능력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며 또래들에게 더 잘 수용되어 유능하고 유아교육기관에 잘 적응하며(우수정, 2001; 이진경, 2004; 임성은, 2004; Shaffer, 2005), 이타적이고 협동적인 친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희, 2006; 유은정, 2010). 반면 자기존중감이 낮은 유아는 열등감과 자신을 무가치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어 결국 정서적 불편감과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Damon, 1991). 이런 이유로 많은 연구자들은 유아의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김보람, 2013; 최혜순, 2004; Thorne, 2007).

유아의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개인 내적변인과 환경적 변인으로 구분하여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김이영, 오성숙, 이시진, 이우연, 이은미, 채혜선, 2014). 전자는 유아의 성별(김영희, 2006; 민정원, 2000; Crain, 1996), 기질(김이영 외, 2014), 사회적 유능감(최희정, 2011), 친사회적 행동(유은정, 2010) 등이 유아의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며, 후자는 유아의 부모(김은영, 2007; 한은희, 2009; Verschueren, Marcoen, & Schoefs, 1996), 교사(김은영, 2007; 신수희, 이완정, 2014) 및 또래관계(김미경, 2004; 김은영, 2007; Goleman, 1995) 등이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연구들의 유아의 자기존중감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개인 내적변인과 자기존중감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며(최희정, 2011), 이에 최근에는 사회적 유능감(최희정, 2011)과 친사회적 행동(김태희, 2013)과 같은 변인들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다양한 개인 내적변인들과의 관련성을 파악해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지금까지 환경적 변인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부모와의 애착과 양육태도(김영숙, 1997; 한미림, 2013; Harter, 1998)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부모와의 관련 요인을 더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자기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살펴보기 위해 유아의 개인 내적변인으로는 유아의 문제행동과 자기조절능력을, 보호자 요인으로는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 변인을 설정하여 유아의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먼저 유아의 문제행동은 유아의 연령에 기초한 규범적 행동으로 보기에 부적절한 행동이나 정상적인 적응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행동으로써 일반 부모나 교사의 일상적인 지도 범위를 벗어나 어려움을 야기하는 행동으로 정의된다(정혜진, 2009). 이와 같은 유아의 문제행동은 부모,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결국 부정적 자기개념을 형성하게 된다는 주장(김이영, 이우연, 배기효, 김병찬, 정선화, 정왕용, 2013)을 고려하면 유아의 문제행동이 유아의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유아의 문제행동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그것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탐색, 즉 유아의 성별과 연령, 유아의 기질, 부모의 양육태도 등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배수진, 2009; 안숙희, 2010; 정혜진, 2009). 또한 친사회적 행동이 유아의 자기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유은정, 2010; 최경숙, 2004)을 고려할 때 유아의 문제행동이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행동에 대한 개념은 학자와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Kaiser와 Rasminsky(2007)의 유아의 학습이나 발달에 방해가 되거나 본인이나 다른 유아 혹은 성인들에게 해를 가할 수 있으며, 향후 학교나 사회에서 실패를 초래할 수 있는 일체의 행동 즉, 과잉-산만행동, 적대-공격행동, 걱정-불안 행동을 기초로 하여 과잉행동, 불안 및 우울을 문제행동으로 정의하고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개인의 내적상태나 반응을 변화시키기 위해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하는 것(Eisenberg, Fabes, & Murphy, 1996; Voh & Baumeister, 2004)으로 영아기부터 지속적으로 발달하여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 및 뇌의 성숙과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자기조절능력이 발달되게 된다. 즉, 자기조절 능력은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지각하고 생각을 내적으로 통제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자기조절능력에 관한 연구는 부모의 양육 변인들과 자녀의 자기조절능력(조영숙, 2008),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따른 자기조절능력의 차이(박미리, 2011; 엄미진, 2012)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자기조절능력이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다소 빈약한 실정이다. 최근 자기에 대한 긍정적 지각과 정서에 대한 자기조절능력이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민정원 2000)를 고려해보면 자기조절능력이 유아의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둘째로 유아의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변인들로는 부모, 교사 및 또래관계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보호자 변인으로 한정시켜 살펴보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건강한 유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의 대표적인 것이 가족요인의 보호자 요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호자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유아는 출생과 동시에 가족의 일원이 되어 성장하게 된다. 보호자는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며 가족구성원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유아의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회체계이다. 즉, 유아가 생후 최초로 관계를 형성하여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접촉을 하는 대상이 보호자이다. 보호자는 유아의 지적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지적인 자극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의 자기존중

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우희정, 1993). 이때 보호자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양육효능감이란 부모로서 자신의 수행 능력에 대한 기대와 판단으로서 부모의 역할에 대한 적응을 돕고, 자녀 양육과 연관되는 문제나 어려움을 잘 관리해 나가도록 동기를 제공하며, 양육 행동의 근원으로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인지적 특성이며, 양육스트레스란 부모역할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이는 부모로서의 경험을 부정적으로 느끼게 하여 자신의 생활뿐만 아니라 자녀의 건강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인식되고 있다(배수진, 2009; 이현정, 1996; 홍성희, 탁정화, 강현미, 2014; Deater-Deckard & Scarr, 1996). 이와 같은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김영옥, 2008; 홍성임, 2005; Abidin, 1990)하고 있지만 유아의 자기존중감과의 관련성 연구는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의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내적변인으로 유아의 문제행동과 자기조절능력 변인을, 보호자 변인으로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 변인을 설정하여 유아의 자기존중감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자기존중감의 총점과 그 하위요인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유아의 자기존중감은 다양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단현국, 이미숙, 2006; Harter & Pike, 1984),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유아의 자기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유아의 자기존중감의 전체와 하위요인(유능감, 소속감, 가치감, 통제감)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유아의 자기존중감과 보호자의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문제행동 및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개인 내적 요인(유아의 문제행동,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보호자 요인(보호자의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이 유아의 자기존중감의 전체와 하위요인(유능감, 소속감, 가치감, 통제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먼저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에 대해 원하지 않으면 설문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공지하였다. 그런 다음 설문에 동의한 대구경북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유아의 보호자 302명을 대상으로 설문이 실시되었으며, 수집된 자료 중 부모가 아닌 조부모의 경우와 응답이 신뢰롭지 못하다고 판단된 24명을 제외하고 296명을 분석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보호자와 유아들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N=296)

| 구분 | 항목 | n | % | |
|-----|---------|---------|-----|------|
| 보호자 | 성별 | 남 | 44 | 14.9 |
| | | 여 | 252 | 85.1 |
| | 학력 | 전문대졸 | 141 | 47.6 |
| | | 4년제 졸 | 111 | 37.5 |
| | | 석사학위 과정 | 9 | 3.0 |
| | 석사학위 이상 | 8 | 2.7 | |
| 자녀 | 이용기관유형 | 유치원 | 216 | 73.0 |
| | | 어린이집 | 80 | 27.0 |
| | 성별 | 남 | 133 | 44.9 |
| | | 여 | 163 | 55.1 |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보호자의 성별에서는 여자가 252명(85.1%)으로 남자 44명(14.9%)보다 많았으며, 학력은 전문대졸이 141명(47.6%)으로 가장 많았으며, 4년제 졸 111명(37.5%), 석사학위 과정 9명(3%), 석사학위 이상 8명(2.7%)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자의 나이는 평균 35.30세(SD=4.44)로 나타났다. 자녀의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먼저 이용기관유형에서는 유치원이 216명(73%)으로 어린이집 80명(27%)보다 많았으며, 성별은 여자가 163명(55.1%), 남자 133명(44.9%)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나이는 만2세 18명(6.1%), 3세 55명(18.7%), 4세 76명(25.9%), 5세 105명(35.7%), 6세 40명(13.6%)으로, 평균 나이는 4.34세(SD=1.17)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부모 양육효능감

양육자의 양육효능감의 측정은 Floyd, Gilliom과 Costigan(1998)의 척도를 안지영(2000)이 사용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본 척도는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자신을 통제하거나 아이를 다루기 어려워하는 것 등을 측정하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87로 나타났다.

2) 부모 양육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양육스트레스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우리 문화에 맞도록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12문항을 구성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α =.73로 나타났다.

3) 유아의 문제행동

본 연구에서 행동평정을 위해 사용된 척도는 K-PIC(Korean Personality Inventory for Children: 한국아동인성검사)이다. 이 검사는 최근 6개월간 아동과 같이 생활한 보호자가 아동의 발달, 정서, 행동, 대인관계, 현실접촉 등과 관련된 일련의 문항들에 답하도록 하여 각 척도별 내용을 분석하도록 되어 있다. 11개의 하위 임상척도에서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울, 불안 및

과잉행동 13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전체 Cronbach's α =.83이었으며, 주의력 .66, 불안 .74, 우울 .72이었다.

4)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본 연구에서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는 이정관(2003)이 학부모용으로 제작한 유아의 자기조절력 평정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하위요인으로 자기평가(유아 스스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평가하고 이를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자기결정(유아 스스로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하는 행동,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스스로 점검 및 결과예측, 자율적 문제해결 전략 및 선택하는 결정능력), 행동억제(통제에 순응, 하고 싶은 충동이나 행동억제, 좋은 보상을 위한 행동지연, 부정적 정서억제) 및 정서성(정서적, 기질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성격적인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 요인의 4문항씩 총 16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조절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전체 Cronbach's α =.75이었으며, 자기평가 .76, 자기결정 .67, 행동억제 .69, 정서성 .70이었다.

5) 유아의 자기존중감

유아의 자기존중감 측정도구는 유아의 행동영역을 유능감(과제 및 목표 해결을 위해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려는 실제적인 행동), 소속감(유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구성원들과 유아가 속한 환경 속에서 그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수용되며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며 행동하는 것), 가치감(개인이 사회적 환경 안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반영된 자기를 가치 있게 여기는 정도), 통제감(어떤 행동을 선택하고 선택의 결과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유아 스스로 자신의 욕구, 정서 및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측정한 단현국과 이미숙(2006)의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유아의 자기존중감의 정도에 따라서 5점 척도에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전체 Cronbach's α =.79이었으며, 유능감 .77, 소속감 .61, 가치감 .69, 통제감 .75이었다.

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설문자료의 분석에는 SPSS 15.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및 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유아의 자기존중감 총점과 하위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Linear Regression)의 단계적 투입방식(stepwise)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변수의 상관관계와 서술적 통계

본 연구의 측정변수들의 서술적 통계와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2>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연구변수의 서술적 통계 (N=296)

| | Mean | SD | 최소값 | 최대값 |
|-----------|-------|------|-------|-------|
| 유아 자기존중감 | 41.84 | 5.49 | 28.00 | 54.00 |
| 보호자양육효능감 | 30.42 | 7.00 | 10.00 | 50.00 |
| 보호자양육스트레스 | 29.65 | 4.05 | 17.00 | 45.00 |
| 유아 문제행동 | 33.74 | 6.43 | 14.00 | 56.00 |
| 유아 자기조절능력 | 38.55 | 4.22 | 25.00 | 51.00 |

<표 2>의 분석 자료의 서술적 통계를 살펴보면, 유아의 자기존중감은 41.84점, 보호자 양육효능감 30.42점, 보호자 양육스트레스 29.65점, 유아 문제행동 33.74점, 유아 자기조절능력은 38.55점으로 나타났다.

<표 3> 연구변수의 상관관계 (N=296)

| | 1 | 2 | 3 | 4 |
|-------------|---------|---------|-------|---------|
| 1 유아 자기존중감 | 1 | | | |
| 2 보호자양육효능감 | -.391** | 1 | | |
| 3 보호자양육스트레스 | -.084 | -.160** | 1 | |
| 4 유아 문제행동 | -.447** | .258** | -.085 | 1 |
| 5 유아 자기조절능력 | .541** | -.333** | .064 | -.365** |

** $p < .01$

<표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연구변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아의 자기존중감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r=.541, p=.000$), 보호자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r=.258, p=.000$)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유아의 자기존중감과 보호자의 양육효능감($r=-.391, p=.000$) 및 유아의 문제행동($r=-.447, p=.000$), 보호자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r=-.160, p=.006$),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r=-.333, p=.000$), 유아의 문제행동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r=-.365, p=.000$)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유아의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유아의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보호자의 나이, 보호자의 자녀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다중공선성의 확인

| 구분 | Durbin-Waston | 공차한계 (Tolerance limit) | 분산팽창인자 (VIF) | Cook's distance |
|--------------|---------------|---------------------------|-----------------|-----------------|
| 자기존중감 총점 | 1.355 | .808 ~ .966 | 1.035 ~ 1.238 | .005 |
| 유능감 | 1.813 | .865 | 1.156 | .005 |
| 자기존중감 소속감 | 1.916 | .905 ~ .962 | 1.039 ~ 1.105 | .005 |
| 하위요인 가치감 | 1.566 | .654 ~ .877 | 1.131 ~ 1.530 | .004 |
| 통제감 | 1.218 | .812 ~ .966 | 1.035 ~ 1.231 | .005 |

<표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Durbin-Waston 값은 모두 2점을 넘지 않아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차한계(Tolerance limit)는 1.0 이하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0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상의 문제는 없었다. 특이값을 검토하기 위한 Cook's distance 값은 1.0을 초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회귀분석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1) 유아의 자기존중감 총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유아의 자기존중감 총점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유아의 자기존중감 총점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296)

| 구분 | B | SE | β | t | p |
|---|--------|-------|---------|--------|------|
| 상수 | 37.190 | 3.667 | | 10.141 | .000 |
| 유아의 자기평가 | 1.157 | .141 | .374 | 8.187 | .000 |
| 유아의 우울 | -.513 | .085 | -.276 | -6.037 | .000 |
| 유아의 정서성 | .590 | .141 | .191 | 4.191 | .000 |
| 보호자의 양육효능감 | .165 | .039 | .199 | 4.290 | .000 |
| 보호자의 양육스트레스 | -.183 | .058 | -.133 | -3.149 | .002 |
| 유아의 행동억제 | .373 | .177 | .092 | 2.116 | .035 |
| R=.718 R ² =.515 (수정된 R ² =.505) F=49.566(p=.000) | | | | | |

<표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회귀분석결과 유아의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먼저 유아 자신의 자기평가($\beta=.374$), 우울($\beta=-.276$), 정서성($\beta=.191$) 및 행동억제($\beta=.092$)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호자 요인에서는 보호자의 자녀양육효능감($\beta=.199$) 및 보호자

의 자녀양육스트레스($\beta=-.133$)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50.5%로 나타났다.

2) 유아의 유능감에 미치는 요인

유아의 자기존중감 하위요인인 유능감(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 주변에 대한 관심이나 호기심,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말로 표현)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유아의 유능감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296)

| 구분 | B | SE | β | t | p |
|--|-------|------|---------|--------|------|
| 상수 | 9.331 | .693 | | 13.460 | .000 |
| 유아의 자기평가 | .435 | .047 | .428 | 9.353 | .000 |
| 유아의 우울 | -.254 | .028 | -.416 | -9.087 | .000 |
| R=.697 R ² =.486 (수정된 R ² =.482) F=134.313(p=.000) | | | | | |

유아의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기평가($\beta=.428$)와 우울($\beta=-.416$)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량은 48.2%로 나타났다.

3) 유아의 소속감에 미치는 요인

유아의 자기존중감 하위요인인 소속감(다른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 자신이 가지고 놀고 싶은 놀이감이 있더라도 차례를 지키거나 양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말함)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유아의 소속감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296)

| 구분 | B | SE | β | t | p |
|---|-------|------|---------|--------|------|
| 상수 | 8.709 | .746 | | 11.680 | .000 |
| 유아의 우울 | -.131 | .027 | -.273 | -4.936 | .000 |
| 유아의 자기결정 | .172 | .051 | .192 | 3.369 | .001 |
| 유아의 행동억제 | .159 | .059 | .150 | 2.691 | .008 |
| R=.412 R ² =.170 (수정된 R ² =.161) F=19.304(p=.000) | | | | | |

유아의 소속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유아의 우울($\beta=-.273$), 자기결정($\beta=.192$) 및 행동억제($\beta=.150$)로 나타났으며, 설명량은 16.1%로 나타났다.

4) 유아의 가치감에 미치는 요인

유아의 자기존중감 하위요인인 가치감(다른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을 좋아함, 다른 아이들과 같이 있어도 위축되지 않음, 행동이 주어졌을 때 무력감을 나타내지 않음)에 미치는 요인

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유아의 가치감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296)

| 구분 | B | SE | β | t | p |
|---|-------|-------|---------|--------|------|
| 상수 | 4.792 | 1.197 | | 4.003 | .000 |
| 유아의 정서성 | .343 | .062 | .289 | 5.571 | .000 |
| 유아의 자기평가 | .388 | .069 | .327 | 5.582 | .000 |
| 유아의 우울 | -.155 | .037 | -.217 | -4.180 | .000 |
| 유아의 자기결정 | -.223 | .075 | -.168 | -2.977 | .003 |
| 보호자의 양육효능감 | .041 | .017 | .129 | 2.469 | .014 |
| 유아의 행동억제 | .156 | .079 | .100 | 1.984 | .048 |
| R=.611 R ² =.373 (수정된 R ² =.360) F=27.807(p=.000) | | | | | |

유아의 가치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유아의 정서성(β =.289), 자기평가(β =.327), 우울(β =-.217), 자기결정(β =-.168), 행동억제(β =.100) 및 보호자의 양육효능감(β =.129)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량은 36%로 나타났다.

5) 유아의 통제감에 미치는 요인

유아의 자기존중감 하위요인인 통제감(놀이나 활동 중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않음, 자신이 한 활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함, 자신이 성취한 활동에 자부심이나 성취감을 느낌)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유아의 통제감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296)

| 구분 | B | SE | β | t | p |
|---|-------|-------|---------|--------|------|
| 상수 | 4.511 | 1.678 | | 2.688 | .008 |
| 보호자의 양육효능감 | .100 | .019 | .286 | 5.202 | .000 |
| 보호자의 양육스트레스 | -.135 | .029 | -.234 | -4.616 | .000 |
| 유아의 자기평가 | .354 | .072 | .272 | 4.919 | .000 |
| 유아의 정서성 | .295 | .070 | .226 | 4.212 | .000 |
| 유아의 주의력 | .120 | .060 | .111 | 2.004 | .046 |
| R=.549 R ² =.301 (수정된 R ² =.289) F=24.203(p=.000) | | | | | |

유아의 통제감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보호자의 양육효능감(β =.286), 양육스트레스(β =-.234), 유아의 자기평가(β =.272), 정서성(β =.226) 및 주의력(β =.111)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량은 28.9%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자기존중감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유아 보호자 296명을 대상으로 유아의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즉, 개인 내적요인(유아의 문제행동과 자기조절능력)과 보호자요인(보호자의 양육효능감과 보호자 양육스트레스)으로 구분하여 이들 변인이 유아의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전반적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변수들의 서술적 통계에서는 유아의 자기존중감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보호자 양육효능감, 보호자 양육스트레스 및 유아 문제행동은 보통 수준의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변수의 상관관계에서 유아의 자기존중감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보호자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유아의 자기존중감과 보호자의 양육효능감 및 유아의 문제행동, 보호자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유아의 문제행동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아의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변인으로 유아의 문제행동과 자기조절능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유은정, 2010), 문제행동(김이영 외, 2013), 유아의 자기조절능력(한미림, 2013; Block & Kreman, 1996)이 유아의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유아의 문제행동 중에서 우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매사에 의욕이 없어 보이거나 걱정이 많고, 활동적인 놀이나 운동을 좋아하지 않고 늘 피곤해 보이는 유아일수록 자기존중감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유아의 문제행동의 주의력과 불안은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아의 주의력 등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재일, 2000)를 고려할 때 추후 그 관련성을 파악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중에서 자기평가, 정서성 및 행동억제가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자기평가(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구분하여 표현, 계획한 것을 적절하게 표현, 어떤 놀이나 행동에 대해 스스로 평가한 후 그 내용을 언어로 표현), 정서성(일상생활에서 실수를 잘 하지 않음, 어떤 일이나 놀이를 할 때 순서를 잘 기다림, 자기가 좋아하는 옷만 입으려고 하지 않고 좋아하는 장난감에 집착하지 않음) 및 행동억제력(어른들이나 친구들이 이야기 할 때 끼어들지 않음, 부모가 바쁘다고 하면 자신의 요구사항을 지연시킬 수 있음, 새로운 것을 하라고 하면 어렵다고 하거나 짜증을 내지 않음)이 높을수록 자기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유아의 자기조절능력(한미림, 2013; Block & Kreman, 1996)이 유아의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조절능력의 하위 요인인 자기결정(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고 행동, 자신이 하고 싶은 놀이를 계획을 세워 활동, 놀이나 활동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혼자서 함)은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유아의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인으로는 보호자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

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보호자의 양육효능감(한은희, 2009)과 양육스트레스(Chetwynd, 1985)가 유아의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보호자의 양육효능감이 높고,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유아의 자기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자기존중감의 하위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유아의 유능감 요인에는 유아의 자기평가와 우울, 유아의 소속감 요인에는 유아의 우울, 자기결정 및 행동억제, 유아의 가치감 요인에는 유아의 정서성, 자기평가, 우울, 자기결정, 행동억제 및 보호자의 양육효능감, 유아의 통제감 요인에는 보호자의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자기평가, 정서성 및 주의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유아의 개인 내적변인인 유아의 문제행동,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환경변인인 보호자의 양육효능감과 보호자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의 자기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실천적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자기존중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아의 문제행동 감소, 보호자의 양육스트레스 감소 및 보호자의 양육효능감 및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수 방법 설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부모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발달과 문제행동 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국형운, 2012), 유아의 문제행동을 다루기 위해 먼저 부모 자신의 양육태도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불어 자녀의 행동변화를 위한 지도와 함께 부모 자신의 양육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유아들의 문제행동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유아교사가 적절하게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문제행동과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김이영, 2014). 더불어 보호자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즉, 자녀양육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과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교육 및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 등을 교육함으로써 양육효능감을 높이고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자녀의 자기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자기존중감의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즉, 유능감(자기평가와 우울), 소속감(우울, 자기결정 및 행동억제), 가치감(정서성, 자기평가, 우울, 자기결정, 행동억제 및 부모의 양육효능감), 통제감(보호자의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및 영·유아의 자기평가, 정서성, 주의력)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향후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후속 연구에서 유아의 문제행동의 감소와 보호자의 양육스트레스 감소 및 보호자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증가를 위한 방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유아의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즉, 교사는 유아발달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며(김은영, 2007), 또래관계와 유아의 자기존중감이 관련이 있다는 연구(김미영, 2004)를 고려해 볼 때,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유아의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본 연구는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유아교육기

관을 이용하고 있는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을 통해 연구가 실시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유아의 자기존중감을 높이기 위해 문제행동의 감소와 자기조절능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높이고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이 유아의 자기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것이다.

참고 문헌

- 국형운 (2012). 부모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기현, 강희경 (1997). 양육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미경 (2004).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자기존중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보람 (2013). 연령집단구성에 따른 협동학습이 유아의 자기존중감과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숙 (1997).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 주는 가정환경의 제 변인.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옥 (2008). 교사효능감이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희 (2006). 유아의 성역할 선호성에 따른 자기존중감.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영 (2007). 유아의 자기존중감과 조망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이영 (2014). 유아의 문제행동이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매개로.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8(1), 135-153.
- 김이영, 오성숙, 이시진, 이우연, 이은미, 채혜선 (2014). **유아발달**. 파주: 양서원.
- 김이영, 이우연, 배기효, 김병찬, 정선화, 정왕용 (2013). **정신건강론**. 파주: 양서원.
- 김태희 (2013).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단현국, 이미숙 (2006). 교사용 유아 자아존중감 척도 개발에 대한 기초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4), 81-104.
- 민정원 (2000). 아동의 애착안정성과 자아지각 및 사회적 능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미리 (201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및 또래 유성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선미 (2011).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또래 유능성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배수진 (2009).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의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수희, 이완정 (2014). 어머니,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에 대한 유아의 인식과 자아개념. **한국보육지**

원학회지, 10(5), 47-62.

- 안숙희 (2010). 유아의 기질, 부모 양육태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지영 (2000).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엄미진 (2012). 유아의 자기효능 수준에 따른 자기조절력 및 생명사랑의 차이.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우희정 (1993). 가정환경과 아동의 자기효능감 간의 인과모형 탐색.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유은정 (2010).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자기존중감.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석빈 (1999). 경험하는 정서의 종류와 선행사건에 따른 정서조절 양식의 차이.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재일 (2000).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성 아동의 귀인양식 및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란 (2003). 유아의 자기조절 구성 요인 및 관련 변인에 구조 분석.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진경 (2004). 사회적 유능감 증진 프로그램이 유아의 자기존중감과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현정 (1996). 어머니가 인식하는 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성은 (2004). 유아의 자기존중감과 유치원 적응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혜진 (2009). 유아의 기질과 자기조절능력에 따른 문제행동. 인하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영숙 (200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간의 관련성 탐색.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경순 (1994). 아동의 사회능력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논문집**, 38, 263-291.
- 최혜순 (2004). **유아사회교육**. 서울: 동문사.
- 최희정 (2011). 유아의 자기존중감과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미림 (2013).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자아존중감 및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은희 (2009). 유아의 자기존중감 기르기 교육활동이 유아의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성임 (2005). 어머니의 양육신념 및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성희, 탁정화, 강현미 (2014). 부모의 행복감이 양육스트레스와 직장어린이집 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2), 73-91.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PSI): Manual pediatric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Block, J. H., & Kreman, A. M. (1996). IQ and ego 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Brown, J. D. (1998). *The self*. New York: McGraw-Hill.
- Chetwynd, J. (1985). Factors contributing to stress on mothers caring for an intellectually handicapped child.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15*, 295-304.
- Crain, M. R. (1996). Age, race, and gender difference in child and adolescent self-concept: Evidence from a behavioral acquisition, context-development model. *School Psychology Review, 23*(3), 496-512.
- Damon, W. (1991). *Self-concept, adolescent. Encyclopedia of adolescence*(Vol. 2). NY; Garland.
- Deater-Deckard, K., & Scarr, S. (1996). Parenting stress among dual-earner mothers and fathers: Are there gender differenc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 45-59.
- Eisenberg, N., Fabes, R., & Murphy, B. (1996). Parent'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ccuracy. In W. Ickes (Ed.), *Empathic accuracy*(pp. 73-116). New York: Guilford.
- Floyd, F., Gilliom, L. A., & Costigan, C. L. (1998). Marriage and the parenting alliance: Longitudinal prediction of change in parenting perceptions an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9*(5), 1461-1479.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Why is can matter more than IQ*. New York: Bantam book.
- Harter, S. (1988). Cause, correlates and function: role of global self-worth: A life-span perspective. In J. Kolligan & R. Sternberg (Eds.), *Perceptions of competence and incompetence across the life-span*(pp. 67-97). New York: Yale University Press.
- Harter, S., & Pike, R. (1984). The pictorial scale of perceived competence and social acceptance for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4), 1969-1982.
- Kaiser, B., & Rasminsky, J. S. (2007). *Challenging behavior in young children: Understanding, preventing, and responding effectively*. Pearson Education, Inc.
- Shaffer, D. R. (2005). **발달심리학**(김수정, 송길연, 양동규, 이지연 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원저 2002 출판).
- Thorne, B. (2007). **칼 로저스: 인간중심 치료의 창시자**(이영희, 박외숙, 고향자 공역). 서울: 학지사(원저 1992 출판).
- Verschueren, K., Marcoen, A., & Schoefs, V. (1996). The internal working model of self, attachment, and competence in five-years-olds. *Child Development, 67*(3), 2493-2511.
- Vohs, K. D., & Baumeistre, R. F. (2004). Understanding self-regulation. In R. F. Baumeister, & K. D. Vohs(Eds.), *Handbook of self-regulation research, theory, and applications*(pp. 1-9). NY: The Guilford Press.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figure out the factors affecting the self-esteem of children. For this purpose, 296 fosterers (those who use the children education institutions) were targeted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self-esteem of children. The factors can be categorized as the personal internal factors (problematic behavior and self-control capability of the children) and the environmental factors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stress of the fosterers). As a result, self-assessment, depression, emotionality, and behavioral restriction factors of the children and child-rearing efficacy, and the child-rearing stress of the fosterers were proven to be influential; these two factors have 50.5% of the explanation power. In conclusion, if self-assessment, emotionality, and behavioral control of the children and rearing efficacy of the fosterers were high, self-esteem of the children was increased. However, if depression of the children and rearing stress of the fosterers were high, self-esteem of the children was decreased. This result suggests a need of program development and a new teaching method to reduce problematic behavior of the children and rearing stress of the fosterers, as well as to enhance rearing efficacy of the fosterers and self-control capability of the children for the purpose to increase self-esteem of the children.

▶ *Key Words* : *self-esteem, problematic behavior, self-control capability, child-rearing efficacy, child-rearing stress*

논문투고 2014. 08. 15.
수정원고접수 2014. 11. 30.
최종게재결정 2014. 12. 21.